

이제 흰은 김수현이 아니라 김다현이다



◀ 뮤지컬 '해를 품은 달'에서 '이 흰' 역을 맡은 김다현. '해를 품은 달'은 함축적인 가사와 대사, 고운 색깔이 돋보이는 무대, 다양한 장르를 녹인 음악으로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다.
사진제공 | 마케팅컴퍼니 아침

공·소·남 양형모입니다

(공연 소개팀 시켜주는 남자)

“죽은 연우 향한 절규의 노래 가슴 먹먹
왕이 된 2막에선 목소리 톤도 근엄하게”

전통색 담은 무대·다양한 장르의 넘버
국민드라마 ‘해품달’ 감동 그대로 재현

2012년 무려 42%라는 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하며 ‘국민드라마’로 호사를 누렸던 ‘해를 품은 달’(이하 해품달)의 뮤지컬 버전, 알려진 대로 정은결 작가의 소설이 원작이다.

드라마의 감동과 재미를 고스란히 무대로 ‘이체’시키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드라마를 재미있게 봤다고 관객들이 뮤지컬도 재미있게 봐주리라는 기대는 일찌감치 접는 게 좋다. TV 시청자와 뮤지컬 관객이 일치하리라는 법도 없다. 실제로 드라마를 보지 않고 공연장을 찾는 관객이 많다.

오늘 ‘공·소·남’의 초대 손님은 드라마에서 ‘김수현 신드롬’을 일으켰던 왕이 된

| 뮤지컬 ‘해를 품은 달’

남자 ‘이 흰’ 역을 맡은 김다현. 김다현은 “여주인공 ‘연우’가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 드라마와 같지만 기억을 시녀 ‘설’에게 봉인시킨다는 설정이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주연배우도 감동하는 명장면, ‘문이 닫힌다’

뮤지컬 ‘해품달’의 미덕은 다양한 장르를 서걱거리지 않게 고루 반죽한 음악, 입과 마음에 착각 날아와 얹히는 대사와 가사, 손대면 문어날 듯 화사한 무대와 조명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통의 조각보를 응용한 무대는 감탄사를 절로 뽑아낸다. 살짝 물 빠진 원색의 색깔이 얼마나 고운지는 직접 눈으로 봐야 한다.

김다현이 맡은 ‘해품달’ 최고의 명장면은 1막의 클라이막스 엔딩, 무녀 ‘장씨(최현선 분)’의 주술이 ‘연우(안시하 분)’의 죽음으로 이어지며 모든 배우가 ‘문이 닫힌다’를 부르는 장면이다. ‘장씨’의 카랑카랑하면서 시원한 목소리, 애절함이 관객의 심장을 압박하는 ‘연우’의 죽음, 앙상을 배우들의

●양기자의 내 맘대로 평점

감동 ★★★★★
흰과 연우의 애절한 사랑이 마음을 울려준다

웃음 ★★★★★
엮기세자 ‘흰’이 1막에서 상당한 웃음을

음악 ★★★★★
국악만 있을 거라고? 록, 힙합, R&B까지 다 나온다

무대 ★★★★★
수제품 디지털 케이크같다.
집에 가져가고 싶을 정도로 예쁘다

군무와 합창이 얹히는 가운데 ‘흰’과 ‘연우’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문’이 닫힌다.

김다현은 “뒤늦게 ‘연우’의 소식을 들은 ‘흰’이 장면 중간에 절규하며 무대로 뛰어든다. 무대 뒤에서 ‘문이 닫힌다’ 앞부분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하다. 매 회 감동을 받는다”고 했다.

●‘흰’의 노래 변화·독특한 연출기법 눈길

‘흰’의 타이틀 넘버(노래)는 ‘그대, 사랑이다’. ‘연우’에 대한 사모곡이지만 이 작품의 주제를 꿰뚫는 곡이다. 공연이 끝난 뒤 커튼콜에서 모든 배우들이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며 관객과 차별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해품달’에는 총 33곡의 넘버가 등장한다. 귀가 밝은 관객이라면 ‘흰’의 1막과 2막 노래 톤이 살짝 다르다는 것을 눈치챌지 모른다. 김다현은 “1막에서는 순수하고 밝은 세자 ‘흰’, 2막은 왕위에 올라 좀 더 근엄해진 ‘흰’을 표현하기 위해 나름 목소리 톤을 조절하고 있다”고 했다.

김다현이 귀찮은 관람 팀 하나. 드라마를 뮤지컬로 만들어서인지 TV에서나 볼 수 있는 기법이 ‘해품달’에 들어가 있다. 예를 들어 주요 인물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스파이처럼 보이는 인물이 슬그머니 한 구석에 등장했다가 소리없이 사라진다. 무대 두 군데에서 각각 따로 스토리가 진행되는 연출도 독특하다.

동생의 여자가 된 ‘연우’를 마음에 품은 ‘양명’(조강현 분)도 반짝 반짝 빛난다. 두 번째 보는 관객이라면 처음부터 ‘양명’의 드라마틱한 사랑과 삶에 방점을 찍고 스토리를 따라가 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하다.

양형모 기자 ranbi361@donga.com 트위터 @ranbi361

며느리한테 아들 뺏겼다…‘고부전쟁’ 선포

1차 칼국수 전쟁·2차 제사상 전쟁 발발
극단 신화, 창작연극으로 고부갈등 조명

‘갈등’을 넘어 급기야 ‘전쟁’이다. 지긋지긋하게도 사라지지 않는, 달갑지 않은 전통 고부갈등 얘기다. 그리고 보니 ‘인류 탄생 이래 가장 복 받은 여인은 이브’라는 유머가 떠오른다. 남편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이브는 시어머니가 없었었다는 얘기.

연극 ‘고부전쟁’은 제목 그대로 고부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꽤 심각한 주제지만 유쾌발랄한 코미디로 푼 창작연극이다. 내용은 이렇다. 며느리는 결혼 2년차 커리어 우먼 김주미(정소영·임지선·전현아 분), 셀러리맨인 남편 이수환(최준용·한재영·박진수 분)과 결

혼해 1년 만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을 순산하고 출산 휴가 중이다. 한편 시어머니 강춘심(선우용여·지미리)은 30여 년간 시장에서 생선장사를 해 가족을 부양한 억척 여인이다. 잘 키운 외아들을 며느리에게 빼앗겼다는 불편한 심경은 말 할 것도 없고, 중학교 밖에 못 나온 시어머니는 대학원까지 나왔다는 며느리가 밉다.

어느 날 느닷없이 시부모가 “손녀가 보고 싶다”며 아들 집으로 들이닥친다.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 “칼국수를 끓여 내오라”고 요구한다. “외식을 하자”는 며느리와 “네가 끓여오는 칼국수를 먹어야겠노라”는 시어머니의 갈등이 날카롭게 맞선다.

제2차 고부전쟁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집안제사. 시어머니는 무리한 제수를 마련하



고부간의 갈등을 다룬 연극 ‘고부전쟁’의 해피엔딩 장면.

사진제공 | 극단 신화

라 요구하고 결국 참다못한 며느리도 폭발을 하고 만다. 전쟁이다!

연출을 맡은 김영수 극단 신화 대표는 “시어머니는 과거의 며느리이며, 며느리는 미래의 시어머니다. 며느리는 사돈집의 귀한 딸이며, 내 딸도 누군가의 며느리이다. 고부간에 한번만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왜 이렇게 현실에서는 힘들까”라며 “우리의 아들과 딸을 위해 사소한 일

부터 하나씩 노력해보자는 뜻을 살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고부전쟁’의 작가는 ‘살인자의 가면무도회’, ‘여자’, ‘별곡의 노래’를 쓴 김용상. 연극에 앞서 6월에 소설이 출간됐다. 극단 신화는 ‘고부전쟁’을 연극에 이어 영화, 뮤지컬로 제작하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8월 25일까지 서울 충정로 NH아트홀에서 공연한다.

양형모 기자

컬처박스

당신은 무엇에 미쳐 살고 있나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 비로소 길은 시작된다. 그 길은 퇴로도 없다. 다만 스스로 밀고 헤쳐 나가야 길이 뚫린다. 좀처럼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잘 닦인 아스팔트길을 버리고 온 몸으로 맘을 뻗뻗 흘리며 새로운 길을 찾는 이들이 있다. 어떤 이들은 ‘미친놈’으로 치부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멋진 도전자’라고 말하기도 한다. 난 다만 그들이 부러울 뿐이다.

여기 그들만의 인생길을 뚫는 젊은 사내들이 있다. 황인범 씨와 김태관 씨. 황씨는 명문고를 나와 편입은 대학에 진학했다. 원래 꿈은 외교관. 스페인과 미국에 살며 ‘이상적인’ 꿈을 키웠다. 그러나 대학시절 여행을 통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았다. 여행 후 돌아와 외교고관의 꿈을 내려놓고 대기업에서 경험을 쌓다 1년 째 되는 날 사표를 던졌다. 그리고 작은 추러스 카페를 열고 틈틈이 여행을 다니는 자유인이다. 김씨는 백두대간 종주를 끝내고 뜬금없이 서울 지하철 2호선을 따라 서울 시내를 한 바퀴 도는 자칭 ‘무동력 여행가’. 야구 광팬이기도 하다. 대학 동문인 두 사내가 대학시절 졸업과 취직을 미루고 함께 여행을 떠났다. 이동수단은 자전거. 중국서 출발해 중앙아시아를 거쳐 포르투갈에 이르는 1만8500km를 여행했다. 268일 간의 여행이었다. 얼마나 많은 시련과 낯선 경험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황씨는 그 이야기를 ‘268, 미치도록 행복하다 (황인범 지음 | 이지출판사)’(사진 왼쪽)라는 책에 기록했다.

또 다른 ‘반란’도 있다. 한 중년의 삼남형 인생반란. 주인공은 50대의 아저씨 김경수 씨. 평범한 서울시 공무원이다. 그는 마흔 즈음 ‘소심한’ 인생에서 벗어나 ‘대범하게’ 살고 싶었다. 대범한 삶의 끝이 겨냥한 곳은 사막과 오지. 10년 동안 사하라, 고비, 나미비아, 칠레 아타카마, 타라마칸, 그랜드캐니언 등 총 2336km의 사막과 오지 레이스를 완주했다. 돈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시간은 연월차를 악착같이 모아서 해결했다. 아내의 반대는? 진심어린 편지와 사랑(?)으로 무마했다. 서울에선 평범한 직장인으로, 사막에선 대범한 모험가로 사는 삶을 ‘미쳐드는 말을 들어야 후회 없는 인생이다(김경수 지음 | 명진출판)’(사진 오른쪽)에 담았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새로운 도전과 대자연을 체험하라’는 말이 있다.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지금 자신의 인생을 리디자인해 보자. ‘열정’을 최고의 재산으로 삼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자. 반란은 그렇게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른다. 나는 지금 한 번 뿐인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연재자 sol@donga.com

■ 눈길 가는 새책

●나무집 이야기(이수민 지음 | 새파란상상) 좌절된 인생들이 피워 비극의 사랑. 패륜과 불륜이 소용돌이치는 소설. 작가의 현란한 수사와 은유 넘치는 필치가 돋보인다.

●앙드레 씨의 마음 미술관(크리스토프 앙드레 지음 | 김영사) 명상의 전문책 해안과 그림의 예술적 심미안으로 선사하는 명상 에세이. 심리치유 프로그램으로 정평 나 있다.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트위터@mkh2357

영국 120년 전통의 슬레진저 여름반바지!!

500분한정 파격특가 **2중 55,000원**

산뜻한 디자인과 컬러감으로 한층 더 뽀시 있고
시원스런 느낌을 주는 스타일로 여름시즌 핫 아이템입니다!



옐로우

오렌지

그레이

네이비

- 스마트한 기능성과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 최상의 라운딩을 꿈꾸는 당신을 위한 선택
- 세련된 디자인과 발수, 투습 등 기능성 우수
- 평상복은 물론 골프, 각종 레저활동에 탁월
- 피트감이 탁월한 소재 사용으로 편안한 착감
- 땀 흡수력이 좋아 한여름에도 쾌적함을 오래도록 유지

소 재 면 65% 폴리에스테르 35%
제품명 슬레진저 남성 컬러 여름골프반바지
사이즈 30 / 32 / 34 / 36 / 38 / 40

반바지 1중 **29,800원** (배송비 2,500원 구매자 부담)
반바지 2중 **55,000원** (배송비 2,500원 구매자 부담)

문의전화 1544-2749
www.NL21.co.kr

HizzLe sports. 입을수록 시원해지는 냉감 티셔츠

초경량 / 뛰어난 속건 / 발수성 / 정전기 및 저항도 매우 낮아 착용감이 매우 우수 합니다!



블랙

네이비

블루

오렌지

화이트

사이즈 : 95, 100, 105, 110

사이즈 : 95, 100, 105,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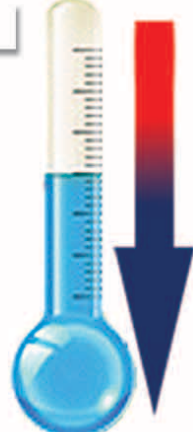
사이즈 : 95, 100, 105, 110

사이즈 : 95, 100, 105, 110

사이즈 : 95, 100, 105, 110

이런분께서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 에어컨이 부담스러운 주부님
- 여름철 물놀이 할때
- 땀이 차고 팔이 타는 운전자
- 열대야에 잠 못 대신
- 더운 여름에 배달서비스 종사자
- 더운 여름에 공부하는 학생
-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은 곳
-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



냉감효과, 자외선 차단효과, 항균효과,
소취기능, 수분흡수력, 건조기능

5중 49,800원

문의 : **1544-2749**

온라인 : **WWW.NL21.co.kr**

카드결제 가능 <택배비 2,500원 소비자부담>